

민주, 익산갑 경선지역 확정

공관위, 1차 발표서 전북 1곳 등 경선 23곳·단수 13곳 2차 결과 설 연휴 이후 발표... 하위 20% 통보도 계획 중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1차 경선·단수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민주당은 2차 심사결과 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 시점도 구정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경선 확정 지역은 △서울 3곳(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부산 1곳(금정구) △인천 2곳(연수구을·남동구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구남구갑)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1곳(남구을) △경기 3곳(광명시갑·군포시·파주시갑) △충남 1곳(당진시) △전북 1곳(익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남구울릉군·김천시·구미시) △경남 2곳(정원시진해구·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주 1곳(제주시갑) 등이다.

1차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 15명은 '여성·합치' 예외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익산갑이 지역구인 김수홍 의원(현역, 초선)은 이춘석 전 의원 등과 경쟁을 치른다. 공관위는 단수 공천지 13곳도 확정

에 원인 제공을 한 이들을 겨냥해선 "책임있는 자세"를 각각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며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기 바란다"고 했다.

공관위는 2차 경선·단수 지역은 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도 연휴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통보에 관한 전권은 제가 갖고 명단을 제만 갖고 있다"며 "적절한 시간에, 그 시간은 분명 구정 후가 될 것이며,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기간을 감안해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하위 20%의 추가 탈락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 대상인 분들 대부분 면접을 받았다. 면접받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다'며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한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돼서 승리하는 후보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보받는 분들이 탈락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6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김관영 도지사가 시장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민 일상 회복 다함께 민생 시책에 만전”

김관영 도지사, 전주 모래내시장서 장보기 캠페인·민생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하며 상인, 주민과 민생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생활물가 현장관리에 나섰고, 소비 분위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여느 때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등 도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있는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이용 촉진을 위해서 직접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로 10여 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도민들에게 고물가로 어려운 설 차례상 장바구니를 위해서 넉넉한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민생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함께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여느 때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등 도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있는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 '다함께민생 특별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결재했다. 특별대책에는 추경 연계 민생시책 발굴, 기존 민생사업 강화, 긴급 민생문제 발생 대응을 통해 경제, 복지, 건설 등 민생 전 분야에서 도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울러, 설명절 종합대책과 간부회의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관리, 명절 전 대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 전반적 소비 분위기 진작 등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실천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장 장보기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성수품으로 기탁했다.

/김재훈 기자

“공정경선 위한 정책토론회 제안한다”

재선 도전' 민주 윤준병 의원, "미래 비전 공약으로 평가받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부터 막무가내식 고소·고발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 등이 난무하며 경선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을 위해 정책 경쟁 및 정책토론회 실시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읍·고창에 재선 도전을 선언한 윤준병 의원은 6일, 정읍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공정경선·정책경선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검증된 능력을 지닌 진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하지만, 지금 정읍·고창 지역에선 아끼면 말고식 고소고발과 상대방 흠잡내기의 구매정치로 공정하게 치뤄져야 할 경선이 퇴색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분석 내용을 허위사

실로 몰아 막무가내식 고발 진행, △현역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될 것이라고 회자하는 날조행위, △정읍시장 선거법 문제와 관련한 의혹과 여론 호도 등의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여론 왜곡이 난무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생과 지역발전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 직책을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노획한 정치꾼들은 더 이상 정읍고창에 발도 붙이지 말라는 주민들의 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정경선·투명경선·신뢰경선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과 고창을 발전시킬 미래 비전 공약으로 경쟁, △주민들과 당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실시 등을 제안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지진방재 조례' 제정

윤수봉 의원 대표발의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진방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2018~2022)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해 장수군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발생

발생으로 건물과 담장이 균열되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더 이상 전북자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조례안에는 지진재해 예방·대응·

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과, 지진방재교육, 콘텐트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진방재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